

志士와 商人의 '사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군사'와 '민중'의 단선적 대결구조로 파악, 그들의 지양을 외친 소위 '新實學문화운동'이 최근 젊은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제기돼 폭넓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실학을 "官學의 보수와 士林의 저항의 갈등 속에 방치된 현실의 재발견"으로 이해하면서, '실학/신실학' '관학적 보수/군사' '사립적 저항/민중' 간에 어떤 유전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그들의 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론 다소간의 유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이제껏 그 어느쪽의 평가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그래서 침묵 외엔 달리 자신의 입지를 구할 수 없었던 대다수 지식인들로부터

심정적으로나마 공감을 얻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군사'도 싫지만 '민중'도 썩 내켜 하지 않는 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판계쪽은 어떤가.

그곳에도 출판의 신실학운동이라 이를 만한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어떤 평가가 물론 존재한다. 쉽게 하는 말로 출판계의 保革대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保革의 거창한 이념적 극단주의로부터 보다 '차원낮은' 구체적 출판현장에 시선을 돌릴 경우, 우리는 '志士'와 '商人'의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책 만드는 일에 온갖 그럴싸한 의미는 다 갖다붙이고, 때론 무슨 독립운동 하듯 치열한

도덕적 당위를 내세우는 지사들의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책의 상품성만을 절대우위에 놓고 금과옥조로 여기는 상인들의 집단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같은 평가들이 '출판인들' 사이에 가시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인의 의식들' 사이에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사나 상인은 없고 그들의 간극을 어설피 메우는 지사적 상인, 상인적 지사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출판계에도 지사와 상인의 평가가 해소돼야 한다. 지사이거나 상인이기를 모두 거부하는, 그래서 지사와 상인의 '사이'를 확보하는 건강한 兩非論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시대 출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사적 제스처의 허황함도, 상인적 실리추구의 그악스러움도 아니다.

출판인은 그저 출판인인 것이 가장 좋다. 지사의 목청은 부담스럽고, 상인의 유혹은 천박하다. — 강철주 차장

출판저널

통권 제 43호 / 1989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李羲天 金俊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선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孝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昌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鏞廈	安秉永
安輝瀟	吳光泳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瑗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靛	李重漢	李憲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元植	鄭鐵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자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철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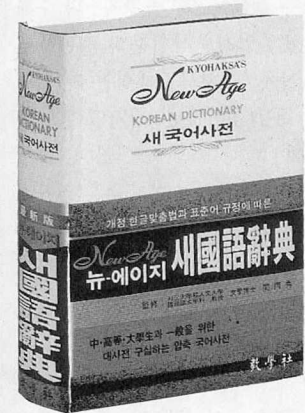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7월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5호(7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유 에이지 새 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고대 중국의 책 「內經」은 어떤 내용의 책인가. 「黃帝內經」 또는 「靈樞素問」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부문에 관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꼽히고 있다.

1. 요리법
2. 농경법
3. 한의학

문제2

광복 직후인 1946년 6월20일 서울의 東明社에서 출간된 「朝鮮常識問答」은 지리·풍속·역사 등 각 분야를 두루 망라한 책으로 유명하다. 이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1. 이인직
2. 최남선
3. 이해조

문제3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은 모두 559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러시아의 사회구조가 점철된 서사시적인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1. 안나 카레니나
2. 부활
3. 전쟁과 평화

문제4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때에도 괴테의 작품을 들고 다니며 애독했다고 한다. 푸른 양복에 누런 조끼를 받쳐 입었던 주인공의 옷차림이 한때 유럽청년들 사이에서 대유행했다고도 하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1. 파우스트
2.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3. 빌헬름 마이스터

출제 · 홍윤기

제4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1호(5월10일자) 퀴즈에 응답하신 엽서는 모두 184통, 이중 정답은 15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③ 수필 전문지

「博文」(1938.10~1940)은 한국 최초의 수필 월간지로서 수필문학 개척에 크게 공헌했다.

2. ① 妓生

조선조 국문소설 「玉丹春傳」은 남자 주인공 李血龍이 평양기생 玉丹春의 원조와 사랑으로 출세해서 어릴 때의 친구인 평양감사 김진희

의 죄상을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3. ③ 보들레르

보들레르(1821~1867)는 미국 시인 에드거 앨런 포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프랑스 상징파의 선구를 이룬 시인이다. 그의 대표적인 시집은 「악의 꽃」.

4. ② 84일간

헤밍웨이 작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차코 노인은 84일간의 흉어 끝에 마침내 거대한 다랑어를 잡게 되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 항구에 닿았을 때는 고기의 뼈만 남게 된다.

당첨자

전상규(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승가대학기숙사 내)

권양희(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635-262호 2/2)

최길용(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88-7호)

박선화(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지동부락)

이맹수(제주도 제주시 삼도동 577-6호)